



최근 미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박소빈씨가 작업실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작업 전 다품은 연필을 쥐고 있는 박씨의 손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필 하나로 뉴욕을 사로잡다

지역 젊은작가 박 소빈 美화단서 주목

'얼장'에 대한 찬사는 동서양이 따로 없었다. 연필을 깎을 때 쌓인 나무 잔재가 수북이 쌓인 작업실에서 오로지 연필만으로 용과 여인의 모습을 그리는 박소빈(39)의 작업 모습을 보고, 뉴욕 화단은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며 극찬했다.

광주의 젊은 작가 박소빈씨가 도미 1년 만에 뉴욕 화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지난 2008년 12월 미국 뉴욕시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ISCP(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입주작가로 활동하다 최근 광주로 되돌아 왔다. 박씨는 기세를 몰아 최근 이탈리아의 로마시가 선정한 입주작가프로그램에 선정됐는가하면 흥행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올해도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나의 작업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매일 평론가와 다양한 작가들을 만나 토론하면서 작업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현대 미술의 메카인 월시 아트뮤지엄에서 전시를 여는 짜릿한 경험도

'용과 여인의 사랑' 그려

뉴욕 첼시 갤러리 전시서 호평

이 유명작가 입주프로그램 선정

했다.

레지던스 기간 동안 제작한 대작과 소품들을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전시했고, 현지 평론가와 '아트뉴스', '아트 인 아메리카' 등 미술 전문지의 호평도 받았다.

특히 월시 갤러리가 자신들의 VIP 고객들을 위해 해마다 마련하는 신년 행사를 메인 전시로 박씨의 전시를 꽂았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 오는 5월에는 이탈리아의 유명 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빌레마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40여 일 동안 입주하고, 하반기에는 뉴욕의 LMCC (Lower Manhattan Culture Council) 스튜디오

에 입주할 예정이다.

해외 유명 스튜디오에 입주하게 되면, 매일 작품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세계적인 갤러리 관계자와 컬렉터들과 직접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작가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이처럼 그녀가 해외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얼장'이었다.

"작은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이 저릴 정도로 아픕니다. 선 하나를 긁기 위해 수많은 연필이 부러지는 모습을 지켜 본 외국인들이 감탄사를 떨어렸습니다."

또 연필이라는 단순한 소재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내고, 동서양이 모두 감동받을 수 있는 설화 속 '용과 여인의 사랑'을 일관성 있게 표현했던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였다.

"작품에 집중을 해야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작업 하냐는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해외 무대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대 출신으로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 예술대학원, 아트그룹 자유로, 애플드 목포 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초지혜 풀주드, 놓을 수 놓다

플루티스트 최지혜 독주회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 신광여중 재학 시절 호남예술제에서 두차례 최고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최씨는 이화여대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석사와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미국 브레바드 음악페스티벌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최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플루트의 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래퍼토리는 고베르의 '녹턴과 알레그로 스케르초', 텔레만의 '플루트를 위한 환상곡', 타타카쉬빌리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고베르의 '로망스와 스케르초'이다.

29일 문예회관서 독주회

호남예술제 두차례 최고상

내달 시향과 협연무대도

최씨는 또 이번 연주회에서 피콜로 연주도 선보인다. 윤수빈(대전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씨와 제닝의 '2 대의 피콜로를 위한 날아가는 새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실시한 오디션에 뽑혀 오는 4월 16일 광주시향과 도플라의 '헝가리 전원환상곡'을 협연할 예정이다.

피아노 반주는 임리라씨.

현재 목포대와 광주대에 출강 중인 최씨는 서울 원드양상설과 협연했으



며 지난 2005년 독주회를 연 바 있다.

문의 070-8654-3166.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8, 9장에서는 선생의 가르침이 조선의 역사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사상적 영향과 선생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 책의 말미에는 선생의 '연보'를 살펴 일생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문화류씨 정간공파대종회(회장 유진규)는 이번 책 출판을 기념해 25일 담양군민회관에서 '석현 류족 선생의 문장·총·정치사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문의 062-261-4580.



조선의 선비

석현 류족

8, 9장

조선의 선비, 석현 류족 사상과 삶 조명

오종일 교수 책 출간... 오늘 담양서 세미나

조선 종종조 사립 석현 류족(石軒 柳 1487~1519) 선생의 삶과 업적을 정리한 '조선의 선비, 석현 류족'(전남대학교 출판부 펴냄)이 출간됐다.

책은 류족 선생의 사상과 삶을 깊이 있게 연구해온 오종일(전주대 명예교수)씨가 수년간의 사료 수집과 현지조사를 통해 엮은 것이다.

류족 선생은 성종 18년 창평에서 태어나 21세에 장원급제를 거쳐 관직 생활을 했으며 놀재 박상, 정암 조광조, 학포 양평손 등 당대 사람의 명신

들과 더불어 훈구대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면서 개혁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세등등한 정국공신들에게 대들면서 폐비 신씨의 복위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작성했던, 전북 순창 강천사 앞 산 인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선생이 살았던 시대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했으며 4장에서 7장은 상소문, 문학 작품, 논변 등을 통해 선생의 사상적 특징과 경제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혜총스님〉 〈정목스님〉

다문화 가정에 부처님의 사랑을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KT 대강당서 '열린강좌'

다문화가족에게 부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25·26일 양일간 광주 동구 KT정보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강좌'정토에 피는 무지개나루'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는 정목스님(불교방송 '마음에 듣는 음악' 진행자)

와 혜총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이 강사로 나와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 한국 사회가 열어갈 희망찬 다문화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강연에 앞서 페리핀 민속공연, 예불이 치러지며 부대행사로 한국 전통차 시음 시간도 갖는다.

입장료는 1인 1만원이며 이날 수익금 전액은 다문화가족 국내 결혼식과 결혼문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에 사용된다. 문의 062-376-3223, 062-962-339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광주미술관회, 미술여행 떠나요

예술의 전당 '모네·피카소전' 등 관람

27일 오전 서울 나들이... 선착순 모집

(사)광주미술관회(회장 김응서)가 27일 미술관 탐방길에 나선다.

이번에 관람할 전시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열리는 '모네에서 피카소까지' 특별전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앤디 워홀 전이다.'

'모네에서 피카소' 전은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소장한 인상주의 걸작 96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앤디워홀'전은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로 '피카소와 아방가르드', '미국 미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현대 미술의 메카인 월시 아트뮤지엄에서 전시를 여는 짜릿한 경험도

했다.

27일 오전 7시 옛 남도청 맞은편 예술의 거리 입구쪽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회비는 4만원. 입장료와 점심, 교통비, 간식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선착순 모집. 문의 010-5599-78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익금 전액은 다문화가족

결혼식과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에 사용된다. 문의 062-376-3223, 062-962-339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인터넷가입문의

본사직영 LG파워월 우스웨어점
APT 주택 100M 램프, 인터넷고속도보장
현금 시은증정금 70% 할인 설치비무료
☎(010)9189-3235

태백산맥

문화2동 사무소 및 문화관
기본 좋은집, 기본 좋은맛!
더욱 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062)252-3555

사랑방모식잎송편

서구 글로벌 72-1630(화) ~ 1010(화)
모식잎 송편 모식잎개떡
새콤개 단장하였습니다
☎(062)385-1015

삼푸보이미용실

동, 충장로 3가 14-2
친절과 봉사로 손님을 모시는 집
우리은행과 제일은행사이
☎(062)228-2838

(주)아이엔에셋보험법인

복구동 봉래동 2-630(화) ~ 1010(화)
자동차보험, 번액보험, 종신보험
영업사원 수시모집
☎(062)512-7117

신포우리만두(전대병원점)

남동 전대병원 앞
분식, 면류, 식사류, 민족전문
대표 조영의
☎(062)225-5775

수도꼭지

복구 일곡동 봉래동 2-6 카토리센타 뒤
각종 숙녀복, 게주얼복
최신 유형스티일복, 판매 전문
☎(062)576-2205

위드락자킨 운암점

운암동 고기길 운암시장 입구
국내산 닭고기 사용, 서비스형
생주포장 가능
☎(062)511-6692

빵빵이상추워워킹&호프

광산구 수원동 부영2지 @ 외 비아농협사
상추워킹, 새우워킹, 생물 오징어워킹
각종 분식 전문점
☎(062)962-1660

베네슈 공인 중개사

광산구 수원동 우미린 @ 1차 후문
상가, APT 분양권, 광진구
대표 박 은 자
☎(062)371-8844

찰한우식육식당

서구 능성동 626-9
이자점, 블테기점
낙지전골, 생태탕
오신손님 기분 좋게 모시겠습니다

상하이

복구 두암동 증화요리 전문점
평수목+찌전1+만두= 11,000원
닭수목+찌전2+만두= 12,000원
닭수목+찌전2+만두= 13,000원
닭수목+